

2023. 12. 21.(목) 조간용

이 보도 자료는 2023년 12월 20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 부서: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

장애인자립지원과장

경자인

02-2133-7470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8쪽

장애인일자리팀장

강윤경

02-2133-7453

서울시,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 본격 시행...보조사업자 모집

- '24년 40억 예산으로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... 250개 장애인 일자리 제공
- 21일부터 25개 보조사업자 공개 모집...민관 협력 통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지원
- 취약계층인 장애인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“약자와의 동행” 실현

□ 서울시는 2024년 시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서울형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인 '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'를 시행한다고 밝혔다.

- 서울형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인 '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'는 장애 유형에 따른 특성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의 변화까지 고려한 것으로 민관이 협업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 내년도에는 본 사업을 통해 총 250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.
-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시각이 발달한 청각장애인에게는 인공 지능(AI)데이터 라벨러 직무를, 거동이 불편한 중증 근육장애인에게는 불법·저작권 침해 콘텐츠 모니터링 직무를 발굴·제안하는 방식이다.
- 보조사업자(수행기관)가 그간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경험을 토대로 민·관의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해 공공기관, 민간기업 등 다양한 근무처와

양질의 일자리를 발굴·제안하는 형태이며, 전문성 있는 보조사업자를 선발해 장애인 참여자가 유용한 일자리 경험을 쌓고,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.

- 또한 본 사업은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 운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장애인 당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과 사회통합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시는 21일(목)부터 내년도 1월 5일(금)까지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25개의 보조사업자를 공개모집 한다.

- 보조사업자 신청 자격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경험이 있는 서울 소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이며, 장애 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 제안하고 싶은 직무와 근무처,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.
- 시는 보조사업자 선정 시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해 장애인 참여자의 실질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,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을 우대할 계획이다.
- 기타 보조사업자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<서울시 누리집 - 서울소식 - 공고 - 고시공고>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□ 보조사업자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고, 장애인 참여자는 보조사업자가 제안한 근무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

-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은 보조사업자 상황에 맞춰, 내년 1~2월 경에 이뤄질 예정이며 모집공고는 워크넷(www.work.go.kr)과 서울 일자리 포털(job.seoul.go.kr)에 공개될 예정이다.

- 장애인 참여자는 소득 수준, 장애 정도, 참여경력, 면접 등의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며, 선발된 참여자는 보조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, 2024년 12월 31일까지 참여하게 된다.
- 일자리 참여자는 일 4시간, 주 20시간 근무하며, 급여는 내년도 최저시급(9,860원)을 적용해 세전 약 103만 원을 받는다.
- 또한 장애인 참여자에게는 진로 탐색 지원, 취업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.

* 보조사업자 여건에 따라 모집 시기 등은 상이 할 수 있음

□ 시는 보조사업자 모집과 관련해 19일(화) 15:00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대회의실에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와 약자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기술기업과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1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.

-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개요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, 보조사업자 선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와 다양한 근무처를 제안할 수 있는 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했다.

※ 2차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(12.27.(수) 10:00,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)



19일(화), 서울시청 서소문 1청사에서 2024년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설명회가 열렸다.

- 이외에도 시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일정비율로 투입하는 보건복지부 국비매칭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.
- 내년에는 올해 대비 540개 증가한 4,424개(453억 원)의 일자리가 지원되며, 장애인들이 주민센터 행정도우미, 복지서비스 지원요원, 사무 행정보조, 발달장애인요양보호, 시각장애인안마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.
-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“장애인 고용에 관심있는 유관기관과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참신한 직무와 다양한 근무처가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”라면서 “서울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인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통해 시정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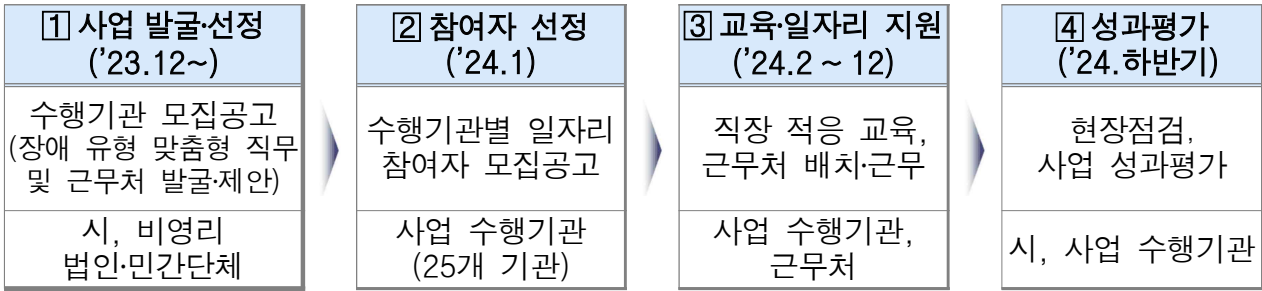
붙임 1: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 소개 1부.

2: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 Q&A

붙임1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

□ **사업개요**

- 사업목표 : 250개 일자리(수행기관 25개 기관)
- 사업기간 : '24.1월 ~ 12월 ※ 일자리 참여자 근무 기간 11개월('24.2 ~ 12월)
- 사업대상 :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미취업 등록장애인
- 지원내용 : 직무교육 + 일경험 제공 + 취업 지원
- 근로조건 : 주 20시간 ※ 보건복지부 시간제 일자리 준용
- 소요예산 : 4,069백만원
 - 참여자(250명) 인건비, 전담인력(25명) 인건비, 기관부담보험료 등
- 추진체계 : 장애 유형별 적합 직무를 비영리 법인·민간단체 공모 통해 발굴
 - (서울시) 수행기관 모집·선발, 사업 운영관리·점검, 사업 홍보 등
 - (수행기관) 직무 및 근무처 개발, 참여자 선발 및 관리, 실적관리 등



□ **추진일정**

- 특화일자리 사업설명회 및 수행기관 공모·선발 : '23.12월~'24. 1월
 - ※ 사업설명회(1차 12.19. 15:00, 서소문 1동 13층 대회의실 / 2차 12.27. 10:00 본청 3층 대회의실)
 - 보조사업자(수행기관) 공고('23.12.21.~'24. 1. 5.)
- 일자리 참여자 사전교육, 근무 : '24. 2~12월
- 사업체(근무처) 현장점검, 일자리 참여자 관리 : 연중

□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직무(예시)

장애 유형	특 성	맞춤형 일자리 예시	활동 예시
지 체	운전, 컴퓨터 활용 등 가능	<p>[운전원] 택시 운전, 승객 응대</p> <p>[재택 사무] 영상편집, 통계 데이터 정리</p> <p>[콜센터 상담원] 전화연결, 예약관리 및 상담</p> <p>[검진요원] 병원, 보건소 등의 검진센터 환경 정리, 검사실 안내, 검사결과지 정리 등</p> <p>[스포츠센터요원] 락커키 분배, 수건 정리 체육시설 강사 보조, 체육 프로그램 보조</p>	 
발 달	반복 학습 통한 단순 직무 가능	<p>[원예관리사] 식물 가꾸기, 작업·포장·정리</p> <p>[택배원] 물품 상하차 보조, 물품 정리</p> <p>[세탁물 정리원] 세탁되어 온 세탁물을 용도에 맞추어 정리 및 사용부서 전달</p> <p>[카셰어링 자동차관리사, 세차원] 차량·공유자전거·전동킥보드 세차 서비스, 차량 내부 정리</p> <p>[장애 예술인] 문화시설에 미술 작품전시, 악기 연주 및 오케스트라 교육 실시</p>	 
뇌 병 변	이동이 적은 직무 습득 가능	<p>[품질 검사원] 제품 품질 상태, 불량 여부 확인</p> <p>[콘텐츠 모니터링] 불법·저작권 침해 콘텐츠 검색 및 관련 기관 신고</p> <p>[온라인 홍보마케터] 홍보자료 블로그, SNS 업로드</p>	
시 각	감각적 예민함 활용 직무 탁월	<p>[안마사, 헬스키퍼] 기업 등에 설치된 안마시설에서 직원 대상 안마 서비스 제공</p> <p>※ 안마는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시각장애인만 종사 가능</p>	
청 각		<p>[인공 지능(AI)데이터 라벨러]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식별할 수 있도록 수집·가공하는 업무</p> <p>[네일 아티스트] 네일아티스트 양성 교육 수료 후 복지관, 경로당 등 시설 이용인 네일 케어</p>	

|Q1| 서울시가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?

- ◆ 기존의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은 양적 성장 대비 일자리의 질과 사업의 내실화에 한계가 있었음. 특히 지난 4년간 추진되어 온 권리중심 일자리는 일자리 참여자의 집회·캠페인 활동으로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등 일자리사업으로써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
 - ※ 최근 3년간 1,038개 일자리 확대('21년 3,318개→'23년 4,356개) 및 사업예산 48% 증가
 - ※ 환경정리 등 단순 노무에 편중된 직무, 민간 전이 미흡 등으로 내실화에는 한계
- ◆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는 장애 예술인, 원예관리사 등 장애 특성과 고용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적합 직무를 민관에 제안받아 운영하고,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해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

|Q2|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계획 및 주요 추진일정은?

- ◆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장애 맞춤형 직무를 발굴해 제공하고, 근무처 다양화·민간 고용 연계 등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임
- ◆ '24년 보조사업자 25개 기관을 공모하여 총 250개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며, 사업예산은 4,069백만원임
- ◆ '23.12.21일부터 '24.1.5일까지 15일간 보조사업자 공고를 시작으로 1월 중 전문성 있는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, '24.1 ~ 2월 중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해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임

|Q3|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은 기존 공공일자리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?

- ◆ 기존 공공일자리 사업은 행정보조·환경정리 등 단순노무 활동으로 직무가 편중되어 있고, 동주민센터·복지시설 등으로 근무처 또한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일 경험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음
- ◆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는 장애 예술인, 원예관리 보조 등 장애 특성과 고용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직무로 운영할 계획임
- ◆ 근무처 또한 기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나아가 도서관·학교·보건소 및 지역사회 내 민간기업으로 대폭 확대해서 다양한 일 경험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할 예정임

|Q4| 특화일자리 참여자의 신청 기준 및 지원 내용은?

- ◆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, 일자리 수행기관별 근로자(일자리 참여자) 모집에 참여하여 최종 선발되신 분이 참여할 수 있음
 - ※ (신청 제외 대상)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,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
- ◆ 일자리 참여자는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보조사업자를 통해 선발하며, '24.1 ~ 2월 중 워크넷(www.work.go.kr), 서울 일자리 포털(job.seoul.go.kr)을 통해서도 공고될 예정임
- ◆ 일자리 참여자로 선정될 경우, 주 20시간 기준으로 다양한 직무활동을 수행하면서 월 최대 103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음